

전남 5곳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선정

순천 공각·담양 청촌·강진 안풍·장성 생촌·함평 백년마을 마을 1곳당 5년간 6억5000만원 지원... 이달까지 신규 접수

“생물 다양성 지키고 농산물 품질 올리고...”

정부가 지난 2019년 시작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한 함평 백년마을의 생물 다양성이 비참여 지역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순천 공각마을, 담양 청촌마을, 강진 안풍마을, 장성 생촌마을 등 전남 4개 마을이 농업 생태계 보전에 동참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2020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마을은 함평 백년마을 등 전남 5곳을 포함한 총 25곳이다.

이 사업은 영농 과정에서의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

전형 영농 활동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앞으로 5년간 농업 환경보전 활동에 필요한 예산 6억50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이 지원된다.

지난 2019년에는 함평 백년마을과 흥성, 보령, 문경, 상주 등 5개 마을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듬해에는 33개 마을이 사업신청을 한 가운데 순천, 담양, 강진, 장성 등 22곳이 대상지에 선정됐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을은 도양·생태·대기분야로 나뉜 ‘개인활동’과 용수·생활·생태·경관·유산분야 등 ‘공동활동’을 하게 된다.

개인활동으로는 ▲완효성 비료 사용 ▲

벼짓 등 농업부산물로 경사진 밭 덮기 ▲ 전적으로 해충 방지 ▲제조제 없이 잡초 제거 ▲태양열로 토양 소독 ▲시설하우스 방충망 설치 등이 있다. 또 ▲뚱벌레 조상·관리 ▲농경지 이용 멸종위기종 조류에 먹이 공급 등 공동활동을 펼쳐며 농업생태계를 보호하고 농업유산을 보전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지난 2019년 5~9월 ‘제조제 없이 잡초 제거기’를 펼친 함평 등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마을은 평균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마을은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손이나 예취기로 잡초를 제거하며 약 사용량을 줄여왔다. 농식품부는 1000㎡당 5만~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왔다.

함평의 경우 민들레류, 썸바귀류 등 필지당 51.9종의 식물종이 평균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제를 사용한 논외의 생물 다양성보다 1.7배 높았다.

김명현 연구사는 “이번 결과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이 농업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힌 데 의미가 있다”며 “제조제를 쓰지 않은 농경지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농경지에 다양한 생물이 출현한다는 것은 농경지가 생태적으로 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말까지 2021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참여 마을 접수를 시·군을 통해 받는다.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 마을이 신청 대상으로, 해당 시·군은 마을별 주민협의회를 마련하고 행정전담조직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대상지는 9월 농식품부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쌀 ‘풍광수도’ 영남 소비자 공략 나서



농협 전남본부 직원들이 지난 8일 올해 첫 ‘풍광수도’ 부산·경남권 판매 시작을 기념하고 있다. (농협 제공)

올 첫 영남권 납품

지난해 영남권에서 판매를 시작한 전남 쌀 공동 브랜드 ‘풍광수도’가 올해 첫 영남권 납품을 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8일부터 전남 쌀 ‘풍광수도’ 10kg 1만포를 부산·경남권 중대형 마트에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풍광수도는 부산 현지 물류업체인 서인 인터네셔널 ‘트라이얼 마트’ 등 부산·경남권에 있는 660㎡(200평) 규모 이상 매장에서 판매된다.

농협은 이번 판매를 기념해 전남도와 함께 10kg 1포 구매 고객에 양과 1량(1kg)을 증정하기로 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해 4월 영남권에서 첫 사은행사를 시작한 뒤 같은 해 10월 본격적으로 부산을 비롯한 경남권 소비지에 풍광수도를 본격적으로 입점시켰다.

풍광수도는 올해 2월 전문기가 선정된 ‘2020년 결산 베스트 신상품 품목부문’ 대상에 선정되고 지난 달부터 수도권·제주도 판매와 TV홈쇼핑 판매를 벌여왔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올해 첫 영남권 입점을 통해 전국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다”며 “전남도와 함께 전국의 농협 대형판매장인 양재, 창동, 수원 등지 릴레이 판촉행사를 실시해 풍광수도가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농·축협 15곳 참여 ‘금요 직거래장터’ 개장



강형구(오른쪽 두번째) 농협 광주본부장이 지난 8일 열린 ‘금요 직거래장터’에서 광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개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올해 첫 ‘금요 직거래장터’를 지난 8일 광산구 수완동 광주비아농협 앞에서 열었다.

광주지역 15개 농·축협이 참여하는 금요장터는 매주 금요일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 장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50여 개의 우수 농산물이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된다.

이날 장터에는 수 백명의 지역민들이 찾아 시식 행사 등에 참여했다.

광주본부는 지난 달 28일 금요 직거래장터 개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난해까지 열린 금요장터 장소를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접근성이 더 높은 광주비아농협 앞으로 변경했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광주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우수 농산물이 유통비용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올해 첫 ‘금요 직거래장터’를 지난 8일 광산구 수완동 광주비아농협 앞에서 열었다.

광주지역 15개 농·축협이 참여하는 금요장터는 매주 금요일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 장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50여 개의 우수 농산물이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된다.

이날 장터에는 수 백명의 지역민들이 찾아 시식 행사 등에 참여했다.

광주본부는 지난 달 28일 금요 직거래장터 개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지난해까지 열린 금요장터 장소를 수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접근성이 더 높은 광주비아농협 앞으로 변경했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광주 시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우수 농산물이 유통비용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aT, 중소식품기업 돕기 온라인 판촉전

‘오랫차차 대한민국’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15일까지 중소식품기업 온라인 판촉전 ‘오랫차차 대한민국’을 우체국 쇼핑몰에서 진행한다

aT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식품기업을 돕기 위해 이번 판촉전을 지난 3월부터 열고 있다.

aT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1분기 동안 우체국 쇼핑몰에서 팔린 중소식품기업 매출은 10억원을 넘겼다.

2차 판촉전은 지난 달 2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며, 3~4차 판촉전은 육선-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제휴하는 등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참가기업은 농공상기업과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 판로 확보가 어려운 학교 급식 납품기업과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식품기업 등 약 80여 업체다.

aT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기획전에서 참가 기업들에 10% 할인금액을 보전한다. 또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기획전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획전은 오는 7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홈페이지(food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관원,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전문가 상담 등 특화서비스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부터 ‘공익직불제 상담·부정수급 신고 전담 콜센터’(1644-8778)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콜센터는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절차·방법·구비서류 등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절차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접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한다.

제도 시행 초기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다시 전화하는 ‘콜백’과 전문가 심층상담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수현 농관원 원장은 “전담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상담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서창농협, 영농자재센터 개점 본격 운영

서창농협은 지난 7일 서구 서창동 영농자재센터를 새단장에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서창농협은 노후화된 창고를 개보수해 비료, 농약, 사료 등 400여 가지 농자재를 구비한 영농자재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개점식에서는 영농회 농기계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서창농협은 조합원 개인별로 필요한 농

기계를 신청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별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농기계로는 동력(살)분무기, 농산물건조기, 관리기, 부속작업기, 예취기 등 총 120여대가 있다.

김명열 조합장은 “영농회 농기계 지원 사업을 비롯해 이번 영농자재센터 준공을 계기로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